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박 순 남**

차 례

- | | |
|-------------------------|---------------------|
| 1. 서론 | 3. 『하학지남』의 체례 |
| 2. 성호학파의 『소학』 편제에 대한 인식 | 1) 『하학지남』의 편장 분절체계 |
| 1) 성호의 『소학도』 | 2) 『하학지남』의 편장 분절 준거 |
| 2) 『동헌학칙』의 입교 편 분장 | 4. 결론 |

국문초록

주자의 『소학』이 ‘한국적 소학’으로 변용되는 과정 속에서 『소학』의 학문 규모 및 편차 체계, 내용 체계 및 중요한 논점들이 한국의 소학서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모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교재로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호 이익의 문도들을 중심으로 유독 새로운 소학서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들 학파의 주자의 『소학』에 대한 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1023464).

**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하학지남』, 『동현학칙』은 주자의 『소학』이 한국 『소학』으로 심화 발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저술물일 뿐 아니라, 한국 『소학』 논의에서 다루어졌던 중요한 쟁점을 포괄하여 내용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된 저술물이라는 점에서 이들 소학서류의 특징적인 면모를 나누어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덕길의 『동현학칙』은 『소학』의 가인과 선행의 외편을 확장 실증한 책이다. 그는 이 책을 만들면서 입교 편을 ‘國學之教’, ‘家塾之教’, ‘家庭之教’ 3장으로 나누어 그 아래 조목을 분속시켰다. 입교 편 분장은 조선 후기 소학학의 중요쟁점으로 주자가 분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던 논의였다. 그럼에도 입교 편을 3장으로 분장하여 명륜 편 아래 5장, 경신 편 아래 4장을 둔 것과 같이 대등한 체계로 편장을 구성하였다. 이는 퇴계가 『소학도』에 입교 편 아래 4장을 두고, 성호가 다시 8장을 둔 것을 계승한 조치이다. 이러한 입교 편 분장은 이상호의 『동학』과 김형재의 『대동소학』에도 그대로 수용되면서 한국 소학서 입교 편의 체계가 하나로 일관되게 되었다.

안정복의 『하학지남』은 중국학자 이성과 조선 학자들의 『소학』 분절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여 일용과 수신에 긴절한 내용들을 <經史子集>에서 추출하고 동국의 현인을 모범 인물로 내세운 소학서이다. 이 책은 각 편장 아래 분절명칭을 세워 그 아래 조목을 분속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분절체계를 세워 저술된 소학서이다. 이에 따라 『하학지남』은 수권은 1편 3장 12절 130조목, 상권은 3편 30장 104절 591조목, 하권은 5편 37장 154절 883조목 등 전체 3권 9편 71장 270절 1604조목으로 분장 분절체계를 완비한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 주자의 학문 방법론을 준용한 것이며,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 소학학의 중요한 성과인 분절 논의를 소학서의 저술에 응용한 것으로, 한국 소학서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제어 : 소학, 편장체계, 분절체계, 퇴계 소학도, 성호 소학도, 하학지남, 동현학칙, 해동소학, 대동소학, 중국학자 이성

1. 서론

『소학』은 아동교육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편찬된 유일한 책이라는 점과, 인간관계의 도덕을 함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소학』 교육의 필요성은 『소학』의 학문 성격과 『소학』의 편제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불러왔다. 특히 각 학파의 성격에 따라 『소학』의 학문 성격이나 교학 체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이설이 제기되면서 『소학』의 학문체계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학』 본문과 주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른 문헌과의 대조를 통해 『소학』 본문 해당 주석과의 정합성이 치정하게 검증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자의 『소학』의 체재와 내용, 주석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으면서 『소학』의 학문적 권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소학』을 긍정하면서도 『소학』 본문의 항목과 의리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성호 이익이다. 성호는 주자의 『소학』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소학』 본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경계하였다. 예컨대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했다는 계고 편 제 14조의 노래자의 효행에 관해 그는 『소학질서』에 “일부러 자빠지고 어린 아이처럼 우는 것은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면, 성인은 반드시 그리했을 것이다.”¹⁾ 고 평가하였다. 이는 『소학』의 내용을 긍정하면서도 그 거취의 뜻도 함께 살필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소학』에 대한 성호의 인식은 그의 문도들에게도 전수되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신후담이

1) 李瀾, 『小學疾書』: 然詐跌兒啼, 微有過當處. 若理合如此, 聖人必爲之矣.

『소학차의』를 저술하였고, 정약용에 이르러서는 『소학』 본문 및 주석에 대해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이 더해진 『소학지언』이 저술되었다. 또한 주자의 『소학』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실정과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재편성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다. 안정복의 『하학지남』, 황덕길의 『동헌학칙』, 박재형의 『해동소학』은 모두 성호학통의 문하에서 나온 저술로 『소학』의 편찬 취지와 체계를 응용하면서도 내용을 달리하여 편찬된 새로운 소학서류들이다. 특히 이들 저서는 모두 『소학』을 치정하게 검토하여 나온 완결된 형태의 결과물로 『소학』 해석에 대한 조선 학자의 독자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이들 저서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소학서 생산에 영향을 끼치면서 양전 이상호(1833~1963)²⁾가 만든 『동학』(1923)³⁾과 일청 김형재(1909~1988)⁴⁾가 만든 『대동소학』(1937)⁵⁾을 통해 그 체계와 내용이 계승되었다. 따라

- 2) 양전(陽田) 이상호(李祥鎬)는 용산(龍山) 이만인(李晩寅, 1834~1897)과 동정(東亭) 이병호(李炳鎬, 1851~1908)의 아래에서 수학하였는데, 용산이 진계 박재형과 교분관계에 있었으며, 『해동소학』의 초고를 교정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재(性齋) 허전(許傳, 1797~1886)은 황덕길의 행장을 쓴 인물이며, 『해동소학』의 서문을 썼던 인물임으로 자연스럽게 진계와 접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용산과 성재는 서로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용산과 사승관계였던 양전은 황덕길의 『동헌학칙』과 박재형의 『해동소학』을 자연스럽게 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보에는 이 두 책을 저본으로 하여 『동학』을 집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호 저, 신귀현 역, 『東學』, 에디터, 2011, 15~16쪽.)
- 3) 이 책은 6권 1책 394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체례는 『동헌학칙』과 같이 가언, 선행 편으로만 구성되어있다.
- 4) 일청(一靑) 김형재(金亨在)는 본관이 김해(金海)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6)의 학맥을 이은 율계(栗溪) 정기(鄭琦, 1878~1950)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 5) 김형재의 『대동소학』은 유언집의 『대동소학』과 박재형의 『해동소학』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만든 책이다. 한관일은 우리 성현의 효행과 국수를 본으로 삼아서 개인의 인격수양을 도모하고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의식과 구국사상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편찬한 윤리 수양서로 이 책을 정의하였다. (한관일, 『『대동소학(大東小學)』의 효교육(孝教育) 연구(研究)』, 『청소년과 효문화』 17권,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1, 62쪽.)

서 성호의 『소학』 해석에 대한 『소학질서』는 한국의 소학서를 만드는 과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소학서라고 점에서 소학사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호학과에서 생산된 소학서에 대한 규명은 이들 학파의 소학서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특징이자, 중국의 『소학』이 한국의 『소학』으로 변용되는 그 과정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저술물은 아동의 저서를 넘어 성인의 일용 학습서로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학자들에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조선이라는 시대 명칭을 넘어 한국의 소학서라고 명칭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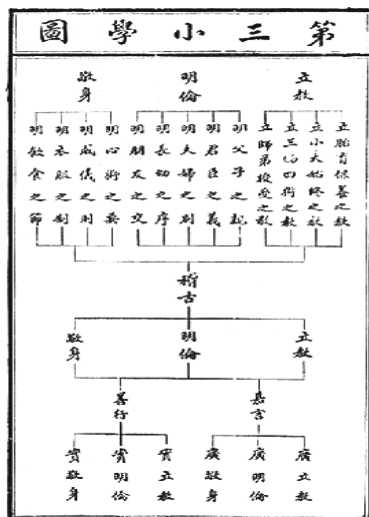
조선에서 『소학』은 『대학』과 처음과 끝을 이루는 교학체계로 설명되었고, 『소학』의 학문적 위상은 四書와 나란한 범주로 五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소학』 논의는 단순한 아동의 교재가 아니라, 주자의 성리학의 이론체계가 집약된 책으로 경학적 입장에서 『소학』의 학문 목표와 내용 체계, 『소학』 내용의 구성 및 『소학』에 수록된 인물 사건을 논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학서류는 『소학』을 기저로 생산된 책이다. 그러므로 이들 소학서에 대한 연구는 『소학』 학문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학문적 쟁점이 반영되어 한국의 소학서로의 변용되었다는 점에서 점검되고 논의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주자의 『소학』을 저본으로 하여, 한국에서 생산된 소학서류 가운데 성호학과에서 산출된 『하학지남』, 『동현학칙』은 『소학』의 체제를 모방하였다고는 하지만 편장 편목 체계 및 서술방식이 다르다. 이는 『해동소학』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학지남』과 『동현학칙』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성호학과 소학서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 소학서로서의 이들 소학서가 가지는 그 의의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들 책의 학문 규모 및 편차 체계, 내용 체계를 경학적 입장에서 논의한 소학학의 범주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저술연도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내용의 추론적 성격상

『동헌학칙』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한다.

2. 성호학과의 『소학』 편제에 대한 인식

주자는 『소학』의 편제를 內篇과 外篇으로 나누고 내편은 立敎·明倫·敬身·稽古 4편으로 구성하고, 외편은 嘉言과 善行 2편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입교·명륜·경신 이 세 편은 경전에 수록된 말



<李滉의小學圖>

로, 모두 인간의 도덕적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과 조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계고·가언·선행 세 편은 입교·명륜·경신의 해당 조목들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 인물들의 격언과 사례를 제시하여 그 실천 가능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학』의 내용체계를 퇴계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성학십도』에 「소학도」를 포함하여 「대학도」와 나란히 이를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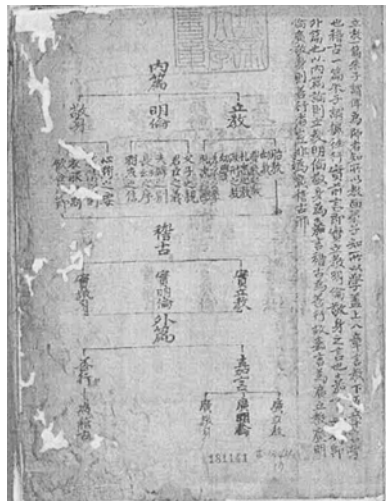
퇴계의 「소학도」는 입교·명륜·

경신 세 개의 강령 아래 입교 편 4장, 명륜 편 5장, 경신 편 4장 등 13개의 장을 두고, 그 아래 계고를 두었다. 계고의 역할은 앞의 입교·명륜·경신의 말을 증명하는 것이며, 외편 가언과 선행은 계고의 내용을 확장 실증하는 것으로 『소학』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여 두었다. 이러한 체계에 대하여 안정복이 정리한 성호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호는 『성학십도』 가운데 「경제도」, 「숙야도」, 그리고 「소학도」를 꼬집어 ‘편치 못하다’⁶⁾고

6) 安鼎福, 『順菴集』 권16, 「雜著-函丈錄」: 聖學十圖, 若敬齋夙夜小學圖, 皆未安.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이후 성호가 퇴계의 『소학도』와는 조금 달리 『소학』의 학문을 체계를 圖示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성호의 『소학도』



〈李瀼의小學圖〉

성호의 『소학도』⁷⁾는 내편 아래 입교·명륜·경신 3개의 편을 두고, 다시 입교 아래 8장, 명륜 아래 5장, 경신 아래 4장으로 17개의 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계고를 두었는데 ‘實’ 한 글자를 더하여 계고편이 내편의 말을 실증하는 체계를 갖춘 편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외편 아래 가언·선행 두 편을 두었는데, 가언 편 아래는 광입교·광명륜·광경신 편을 두었고, 선행 편 아래에는 광계고 편을 두었다. 이러한 배

치에 대하여 성호는 도설을 다음과 같이 덧붙여 두었다.

계고 한 편은 주자가 ‘지난 간 행적을 뽑고, 앞의 말을 실증하였다’고 하였다. 즉 입교·명륜·경신의 말을 실증한 것이다. 가언과 선행은 곧 외편이다. 내편으로 논한다면 입교·명륜·경신은 가언이 되고, 계고는 선행이 된다. 그러므로 가언이 광입교·광명륜·광경신이 된다면 선행이 어찌 광계고가 아니겠는가?⁸⁾

7) 성호의 『소학도』는 규장각 본에 수록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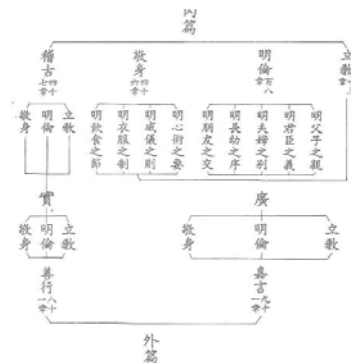
8) 李瀼, 『小學疾書』, 『小學圖』: 稽古一篇, 朱子謂 摭往行 實以言. 則實立教明倫敬身之言也. 嘉言善行即外篇也. 以內篇論, 則立教明倫敬身為嘉言, 稽古為善行, 故嘉言為廣立教廣明倫廣敬身, 則善行者, 豈非為廣稽古也.

19세기 영남학자 유휘문(柳徽文, 1773~1832)은 “내편의 입교·명륜·경신은 곧 옛날의 가언이며, 계고는 곧 옛날의 선행이다. 외편의 가언은 입교·명륜·경신을 이은 것이며, 선행은 계고를 이은 것이다.(중략) 『소학』의 규모와 차례가 이 세 편을 넘지 않음을 볼 수 있다.”⁹⁾고 하였다. 그의 발언은 성호의 『소학도』의 내용에 대한 도설에 다름 아니다. 이후 조선 말기에 영남의 학자 김황(金樞, 1896~1978)이 저술한 『소학도』¹⁰⁾ 역시 성호의 설을 수용하여 구상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성호의 『소학도』는 『소학』의 학문 체계는 입교·명륜·경신의 세 강령 아래 그 하위의 조목들이 6편 아래 대등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소학』의 내용 체계는 입교·명륜·경신 세 편이 본편이고, 외편의 편제와 구성은 내편의 속편임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퇴계의 『소학도』에 대한 성호의 비판적 의견은 『소학』 학문의 체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두 도설을 다시 비교해 보면 입교 편 아래 둔 장의 명칭이 다르다. 퇴계는 ‘立胎育保養之教(1-3)’, ‘立大小始終之教(4-6)’, ‘立三物四術之教(7-8)’, ‘立師弟授受之教(9-13)’ 4장을 둔 반면, 성호는 입교 편에 분속된 13조목을 ‘胎教(1)’, ‘幼教(2-3)’, ‘學校之教(4)’, ‘禮樂之教(5-6)’, ‘政刑之教(7-8)’, ‘幼學(9)’, ‘孝弟之學(10)’, ‘禮樂

9) 柳徽文, 『小學童子問』: 內篇之立教明倫敬身, 卽古之嘉言也. 稽古, 卽古之善行也. 外篇嘉言, 所以繼立教明倫敬身也. 善行所以繼稽古也.(中略)且以見小學規例不越乎是三篇也.

10) 조선 말기 영남의 학자 중재(重齋) 김황(金樞) 역시 사서오경에 『소학』을 포함한 『경학십도』 가운데 제10도로 『소학도』를 도식화하였다. 중재의 『소학도』는 성호와 같이 내편과 외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였는데 입교 아래 조목 둔 것을 제외하고는 계고·가언·선행 편에 대한 인식이 성호의 『소학도』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金樞, 『經學十圖』, 『第十小學圖』)



之學(11-13) 8개의 장으로 나누어 두었다.

성호가 입교 편 아래 장을 두었다는 것은 명륜·경신 편 아래 하위 장을 둔 것과 같이 입교 편 아래 하위 장을 두어 대등한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퇴계의 분장을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호는 퇴계가 4장으로 분장한 것을 그 배가 되는 8장으로 분장하였다. 그 분장된 명칭으로 살펴보면 敎와 學으로 의미경계를 세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나누어 그 내용에 따라 조목을 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절하여 의미한 명칭에서 퇴계의 분절설과의 유사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호가 퇴계의 분장설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은 퇴계의 입교 편 분장에 대한 당대 평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대부분 학자들은 주자가 분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교 편 분장 자체를 부정하였지만, 그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大小始終’과 ‘立師弟授受之敎’ 장과 같은 경우에는 끝내 적당하지 않다는 당대 학자들의 관점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¹¹⁾ 성호의 입교 편 분장은 다음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입교 한 편은 주자가 ‘스승이 된 자로 하여금 가르칠 바를 알게 하고, 제자 된 자에게는 배울 바를 알게 한다’고 하였다. 대개 앞의 8장은 敎로 말하였고, 뒤의 5장은 學으로 말하였다.”¹²⁾

주자의 말은 곧 입교 편 의 편제이다. 이 말로 본다면 입교 편은 퇴계가 정한 ‘師弟授受之敎’에 다름 아니다. 성호의 입교 편 분장은 퇴계의 분장에 대한 수정 보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자가 입교 편을 만든 중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분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1) 박순남, 『好古窩 柳徽文의 『小學章句』 분석』, 『동양한문학연구』 제34집, 동양한문학회, 2012, 179~181쪽.

12) 李瀼, 『小學疾書』, 『小學圖』: 立敎一篇, 朱子謂 俾爲師者知所以敎, 而弟子知所以學. 蓋上八章言敎, 下五章言學也.

퇴계의 『소학도』와 성호의 『소학도』 입교 편 분장은 내편의 입교 편 13 조목에 대한 설명일 뿐, 입교 편 전체를 아우르는 분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명륜 편과 경신 편 아래 9장을 둔 것이 계고·가언·선행 편에도 적용되었듯이, 이후 입교 편 역시 내편에 준거한 분장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합당성이 논의되게 되었다. 성호의 입교 편 분장에 대한 의의를 인정한 인물은 그의 문도인 하빈 신후담이다. 신후담은 조선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소학』 전체 본문의 내용을 의미 경계를 세워 『소학』의 분절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는 입교 편을 ‘統論設教之方 受學之道(1-2)’, ‘師之所以教者(3-8)’, ‘弟子之所以學者(9-13)’ 3장으로 분장하였다. 그가 세운 분장개념을 살펴보면 성호가 세운 입교 편 분장의 명칭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호가 세운 8개의 장을 3개의 장으로 줄이면서, 제1조와 제2조를 교학의 통론 개념으로 세우고, 이를 다시 ‘師教’, ‘弟學’으로 나누어 조목을 분속하였다. 이러한 신후담의 입교 편 분절은 입교 편 의의가 스승이 가르칠 바와 제자가 배울 바에 대한 도리를 서술하는 편임을 그대로 계고·가언·선행 아래 입교 편을 분절에도 적용시켜 입교 편 전체가 의미적 접합점을 이루도록 체계를 세웠다.¹³⁾ 그러나 성호의 『소학도』의 입교 편 분장은 퇴계 이후 『소학』의 본문이 일정한 뜻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경계가 있음을 동의한 것이지만, 조선 후기 입교 편 분장에 대한 논란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김황의 『소학도』에 입교 편 아래 장을 두지 않은 것은 『소학도』와 관련된 논쟁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학도』 아래 입교 편 의 분장개념이 『소학』의 내, 외편의 입교 편을 관통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전체 입교 편과 일맥상통하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는 입교 편 의 본문 내용이 전체 『소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고, 조목의

13) 신후담의 『소학』 분절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박순남, 「신후담의 <소학차의> 연구- 분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8집, 한국문학회, 2018, 102~105쪽.)

내용이 『소학도』의 분절명칭에 의거하여 논단할 수 있는 뚜렷한 경계지점이 없는 것도 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입교 편 편장이나 편목의 구분에 의거하여 새로이 논단하여 입교 편 의 요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학』의 입교 편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였다. 퇴계와 성호의 입교 편 분장에 대한 의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소학』 입교 편 의 분장 문제를 해결한 이가 하려 황덕길이다.

2) 『동현학칙』의 입교 편 분장

황덕길은 영조 39년(1763)에 성호를 뵈고 이후 안정복으로부터 학문을 배워 허전에게 전수한 인물로 성호학통의 착실한 계승자였다. 황덕길이 저술한 『동현학칙』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현의 가언·선행에 관한 내용을 뽑아서 정조 10년(1786)에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소학』의 외편인 가언 편과 선행 편 의 두 체제로 구성되었는데, 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후반까지 모두 253 인의 고사가 744조목으로 수록되어 있다.¹⁴⁾ 인물 가운데 퇴계의 언행이 가장 많으며, 스승이었던 안정복의 책도 인용되어 있어 그의 학맥의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 『동현학칙』의 발문을 쓴 소눌 노상직(1855~1931)은 조선 말기 『소학』과 함께 『동현학칙』을 강학의 중요한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 책이 영남학파와 근기 남인의 모범적인 언행을 익히는 입문서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14) 『동현학칙』은 모두 738조목임을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해 남재주는 가언 편 입교(30), 명륜(76), 경신(196)이며, 선행 편은 입교(42), 명륜(184), 경신(216) 조목으로 가언 편 명륜 2조목, 경신 2조목 그리고 선행 경신 1조목이 더 있음을 밝혀 『동현학칙』은 총 744조목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혀두었다. (황덕길 저, 남재주 옮김, 『아동을 위한 조선판 소학』, 민속원, 2018, 18쪽.)

15) 정경주, 『소눌 노상직의 생애와 학문경향』, 『동양한문화연구』 18, 동양한문화회, 2003, 210~214쪽.

『동현학칙』의 체제는 주자가 가언 편과 선행 편 아래 입교·명륜·경신을 두고, 명륜 아래 5장, 경신 4장을 둔 체례를 준용하되, 가언·선행편의 입교 아래 ‘國學之教’, ‘家塾之教’, ‘家庭之教’ 3장을 별도로 두었다. 퇴계와 성호가 『소학도』에 입교 편 아래 분장하여 명륜·명륜 편과 대등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였던 의도가 『동현학칙』에도 적용된 것이다.

『동현학칙』의 입교 편 분장에 대하여 하려는 별다른 견해를 내어놓지 않았다. 『동현학칙』 및 『해동소학』의 체제를 준용하여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대동소학』의 저자 김형재는 입교 편제에 “『소학』의 편명을 그대로 취해서 입교라 하고, 우리 역사의 발자취에서 국학, 사숙, 가정으로 입교를 추렸다.”¹⁶⁾라고 해 두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학』의 입교 편 분장은 그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입교 편 분장개념이 입교 편 전체를 통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신후담은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소학』 입교 편을 새로이 분장하면서 선행 편 입교를 ‘實家庭之教’, ‘實學校之教’, ‘言君子化一鄉之教’, ‘言聖賢開來學之教’ 등으로 정리하였다. 적시된 분장명칭만 본다면, 『동현학칙』의 입교 편 분장명칭과 비슷하다. 그러나 내편 입교를 ‘統論設教之方 受學之道’, ‘篇題所謂師之所以教者’, ‘篇題所謂弟子之所以學者’ 3장으로 나눈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입교 편 분장에 대한 정합성 문제는 신후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현학칙』의 새로운 입교 편 분장은 『소학』의 입교 편 분장에 대한 논란을 사실상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세운 분장개념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에 따라 국립과 사설기관, 그리고 가정의 가르침으로 나누어 교학체계를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후담이 세운 분장명칭과는 달리 입교 편 전체의 교학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분장개념으로, 입교 편이 전체적인 논지 속에 접합될 수 있는 의미 구조가 되게 되었다.

16) 김형재 저, 이민수 역, 『大東小學』, 흥익문화사, 1997, 8쪽.

한편 퇴계는 ‘立胎育保養之教’로 성호는 ‘胎教’, ‘幼教’로 가정에서의 교육을 첫머리 장으로 삼았다. 이는 『소학』의 입교 편이 태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학』은 태교에서부터 그 나이에 따른 성장 과정 안에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순차적으로 기술되어있다. 그에 반해 『동헌학칙』은 『소학』의 체례를 따르지 않고 국학, 가숙, 가정장으로 그 순서를 달리 정하였다. 그러면서 가정 장 안에 태교의 조목을 두지 않았다. 『동헌학칙』의 입교 편 분장 원칙을 그대로 계승한 『동학』, 『대동소학』에도 태교의 조목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소학』의 체례를 충실히 반영한 『해동소학』 역시 태교의 조목은 빠져 있다. 이는 『소학』의 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열녀전 태교 절은 이는 곧 『소학』의 先天이다. 주자가 ‘사람을 가르침은 아이를 깨우치는 데 있다’고 말하였는데, 오히려 아이를 깨우치는 것이 늦다고 여겨 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으로 아동을 이끄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듯하다. 이는 결국 성인인 부부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지, 동자에게 급한 것은 아니다. 대개 입교 여러 편들을 묶어서 편말에 내려두어야 마땅하며, 이 부분으로 첫머리를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¹⁷⁾

이는 정약용이 제출한 『소학』 입교 편 첫 조목에 대한 견해이다. 여기에서 ‘先天’은 『소학』 공부를 하기 이전의 상태, 즉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소학』은 아동을 위한 필수교재였다. 그러므로 태교의 조목은 아동이 먼저 배우기에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것이 다산이 태교 조목의 이속을 제안한 이유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첫 구절로 태교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소학』의 편차를 주자가 배치한 이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은 주자

17) 丁若鏞, 『小學枝言』: 列女傳胎教節. 此是小學之先天, 朱子謂教人在蒙養, 而猶以蒙養爲晚, 推以至於胎教. 然以此文, 而援童幼却似不合. 此終是成人夫婦之所宜知, 童子非所急也. 大抵立教諸篇, 總宜降在篇末, 恐不必弁首於一部.

의 편찬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의 이속은 물론, 구절의 재배치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동헌학칙』의 입교 편에 대한 차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조목의 분속은 아동 교재로서 소학책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당위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이 『동헌학칙』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만들어진 소학서는 주자가 만든 『소학』의 체계를 준용하였다고 밝혔지만, 입교 편 분장 및 차서의 변용은 『소학』의 체제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와 방식을 구상하여 만들어진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하학지남』의 체례

성호학파의 『소학』에 대한 이해는 기호학파의 『소학』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학』의 분절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은 특이할 만하다. 성호의 영향 아래 저술된 신후담의 『소학차의』가 『소학』 본문 전체를 일정한 개념을 세워 분절로 이해한 한국의 독자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한국 소학사에 적지 않은 의의를 보여준 것과 같이 성호학파 소학서의 내용체계 및 서술 방식은 한국 소학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안정복의 『하학지남』이다.

1) 『하학지남』의 편장 분절체계

안정복의 저술 가운데 주자의 『소학』을 구상하여 만든 책은 『하학지남』과 『내범』이 있다. 『하학지남』은 영조 16년(1740)에 저술하였고, 『내범』은 영조 17년(1741)에 저술되었다. 『내범』은 부녀자를 위한 소학으로 모두 6책으로 만들어졌으나, 전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황덕길의 『동헌학칙』 선행 편 부부지별 장에 『내범』을 출처로 한 3조목이 수록된 것으로

이 책의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가 성호를 배알한 것이 영조 22년(1746)이니, 『하학지남』과 『내법』은 사실상 성호의 영향 아래 쓰인 책은 아니다. 그러나 순암이 영조 30년(1754)에 성호에게 『내법』의 서문을 쓸 줄을 부탁한 적이 있고, 『하학지남』의 제문은 정조 8년(1784)에 쓴 것으로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성호가 『내법』에 대하여 이 책이 『소학』의 선도로 쓰이기에는 그 ‘내용이 번다하다’고 지적한 것이 있고,¹⁸⁾ 영조 26년(1750)에 순암이 『소학』의 본문에 대해 질문한 문목에 성호가 답변¹⁹⁾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영조 35년(1759)에 순암 스스로 『하학지남』에 대해서 “『하학지남』은 참으로 볼만하나, 자못 번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였다.”²⁰⁾고 토로한 바 있다. 이로 보았을 때 적어도 성호의 고견을 살펴 다시 이들 책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학지남』은 일용과 수신에 긴절한 내용들을 <經史子集>에서 추출하여 각 편장 아래 분절명칭을 세워 그 아래 조목을 분속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분절체계를 세워 저술된 소학서이다. 이는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 한국 소학학의 중요한 성과인 분절체계를 소학서의 저술에 응용한 성과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하학지남』의 학문 체계와 내용은 『소학』의 학문을 분절 단위로 해석한 학문 방식을 준용하여 首卷, 上卷, 下卷 3권 9편 71장에 대한 분절 명칭과 그 아래 분속된 조목을 정리하였다. 다음과 같다.

18) 李瀼, 『星湖全集』 권24, 『書-答安百順』: 故此書惟願務簡不務繁. 使之易行, 婦功亦多矣.

19) 『소학』 본문 및 주석과 관련해서 7조목을 문답하였다.[李瀼, 『星湖全集』 권24, 『書-答安百順 小學問目』]

20) 安鼎福, 『順菴集』 권14, 『雜著-示弟鼎祿子景曾遺書』: 下學指南, 儘有可觀, 而頗煩冗未刪.

<『하학지남』의 수권, 상권 편장 분절체계>

권	편	장	절	조목수					
首卷	日用編	夙興章	味爽寅	27					
			日出卯	17					
			2절	44조목					
		日間章	食時辰	8					
			禺中巳	8					
			日中午	6					
			日昃未	15					
			日晦申	7					
			5절	44조목					
		夜寢章	日入酉	3					
			黃昏戌	16					
			人定亥	13					
			夜半子	1					
			鷄鳴丑	9					
		5절	42조목						
수권	1편	3장	12절	130조목					
권	편	장	절	조목수	권	편	장	절	조목수
上卷	讀書	讀書之義章	(1)절	3	上卷	爲學	總論章	通言爲學	14
			(1)절	3				言古今學異	2
		讀書之序章	(1)절	3			2절	16	
			讀書之法章	通言讀法			6	立志章	(1)절
		讀書貴靜養		7			變化氣質章	言變化氣質	9
		讀書貴治精		7				革舊習附	2
		讀書要求實用		6			2절	11	
		讀書貴勤苦		4			窮理章	通言窮理	16
		讀書必敬聖訓		2				言窮理以敬爲本	2
		6절		32				言致知爲行之本	2
		讀小學四書章		讀小學法				4	言知行相俟
			言致知必急先務						5
								通言博學	4
							言番問	4	

		讀大學法	3			言慎思	4		
		通言小大學	2			言明辨	1		
						9절	44		
			讀論語法		5	力行章	言力行	9	
			讀孟子法		2		1절		9
			通言論孟		4	存養章	言存養通貫動靜	21	
			讀中庸法		2		言戒懼附	3	
			通言四書		2		2절		24
			8절		24	省察章	通言省察	12	
			讀諸經章		讀詩法		6	言幾微	8
		讀書法			2		言謹獨附	12	
		讀禮法			5	3절		32	
		讀易法			3	克治章	言克治	11	
		讀春秋法			3		擴克附	3	
		通言六經			1		2절		14
	6절				20	敦篤章	言敦篤	10	
	讀性理諸書章	讀性理諸書	11		勉強附		3		
		言解經	5		敦篤之反		6		
		2절			16		3절		19
	讀史章	(1)절	8		論敬章	通言敬	7		
	尙論章	(1)절	5			言整齊嚴肅之謂敬	8		
	寫字章(附)	通言書法	4			言惺惺法	4		
		論作字體	6			言其心收斂	2		
		言書札	4			言敬近畏	3		
		3절				14	言敬義	5	
	作文章(附)	通言作文法	9			言敬貫動靜兼內外	12		
		論製述	6		7절		41		
		言作文之害	3		論誠章	通言誠	6		
	異端章					兼言敬	2		
		2절		8					
		通言異端之害	3						
		通言楊朱老莊之學	4						
		言道家	2						
		言禪佛	5						

			言爲學之害	1				言象山陽明之學	3		
			論學業	5				言東萊史學之非	1		
			論學業之害	3				言龍川事功之非	3		
			6절	27				7절	21		
상권	독서편	10장	35(4)절	152 조목	상권	위학편	12장	42(1)절	252 조목		
권	편	장	절	조 목 수	권	편	장	절	조 목 수		
上卷	心術	誠意章	言誠意	5	上卷	心術	逸慾章	通言逸慾	11		
			言毋自欺	6				言聲色之慾	9		
			言思無邪	5				言貨利之慾	5		
			言審理慾之分	10				言名利之慾	5		
			言辨義利之別	12				言玩好之慾	5		
			5절	38				言飲食之慾	5		
		正心章	(1)절	5			6절	40			
		養氣章	專言養志氣	13			器量章	通言器量	10		
			兼言養血氣	4				言接物之量	4		
			2절	17				言容忍之量	4		
		操存章	通言操存	10			成實章	言矜爲害量之原	3		
			言心有偏私之解	3				5절	24		
			言思慮之害	6				(1)절	7		
			求放心	5				8장	28(2)절	187 조목	
			言治心疾法附	3							
		5절	44	30장			104(7)절	591 조목			
		喜怒章	言喜怒						3	상권	3편
			單言怒						5		
			兼言忿爭之非(附)						4		
			3절						12		

<『하학지남』의 하권 편장 분절체계>

권	편	장	절	조 목 수	권	편	장	절	조 목 수
下 卷	威 儀	總論章	通言威儀	4	下 卷	正 家	孝敬章	言奉養之節	7
			兼言氣像	11				言承命之節	3
			2절	15				言侍側之節	6
		敬身章	通言敬身	6				言服役之節	4
			言惰慢之非	4				言幾諫之節	4
			言戲謔之非	3				言侍病之節	4
			言玩物之非	7				言處變之節	5
			言器用必敬	5				言侍下諸節	1
			5절	25				9절	38
		正容章	通言正容	4			居喪章	言執喪之節	2
			言正身體	3				通言居喪	9
			言正容色	8				2절	11
			言正視聽	8			祭祀章	言祭祀之節	10
			言正聲氣	3				言齊戒之節	6
			言正動作	3				言追感之節	6
			言正坐立	8			3절	22	
			言正步趨	5			友愛章	(1)절	6
			言正拜揖	3			夫婦章	通言夫婦之道	7
			言正頭容	1				言男女有別	7
			言正手容	2				2절	14
		11절	48	教養章			通言教養	9	
		謹言章	通言謹言	12			言父子主恩	2	
			言謹與人言	13			2절	11	
			言聽言知人	5			冠禮章	(1)절	4
			言言人過之非	5			婚禮章	通言婚禮	4
			言重然諾	3				言婚姻論財之非	4
			兼言謹言行	6				2절	8
言陋笑(附)	5		敦睦章	(1)절	9				
7절	39		禦下章	通言禦下	10				
衣服章	通言衣服	7		言禦奴僕	5				
	言衣冠當整	3		2절	15				
	言衣服當儉	5	治產章	通言治產	3				
3절	15	言制用之道		5					

		飲食章	通言飲食	5				2절	8
			言飲食當節	6			儉約章	通言儉約	5
			言酒	8				言安貧	10
			3절	10				2절	15
하권	위의편	6장	31절	161 조목	하권	정가편	13장	28(4)절	168 조목
권	편	장	절	조 목 수	권	편	장	절	조 목 수
下卷	正家	總論章	(1)절	7	下卷	處己	持身章	通言持身之道	5
		孝敬章	通言孝	4				言持身之這在恭謙	9
								言驕吝之害	3
								言謹慎	5
								言攝養	7
권	편	장	절	조 목 수	권	편	장	절	조 목 수
下卷	處己	持身章	5절	29	下卷	接人	師友章	言教誨之道	19
		處事章	通言處事	21				言事師之道	6
			處事當厲廉耻	6				言不能事師之非	2
			言處事當別嫌疑	7				言交友之道	11
			論事(附)	2				言朋友講習	9
			4절	36				言朋友相長	6
		操守章	專言操守	12				師友相恤	6
			兼言定力	4				言交序必慎	7
			言正終	6				9절	71
			恐怯(附)	3			接賓章	通言接賓之道	4
		4절	25	言送迎之節				5	
		義命章	通言義命	9				言酬答之節	2
			言死生壽夭	3			言饋客之節	2	
			言富貴貧賤	6			4절	13	
			言處患難	10			待人章	通言待人之道	15
		言知足(附)	8	言觀人之術				8	
		5절	36	言君子小人之別				10	
改過章	通言改過	11	言待小人之道	18					
	言悔悟	6	言去讒	4					

			言受人規箴	5				言樂善	8	
				3절	22			6절	63	
		辭受取與章	(1)절		10		篤義章	言篤義	8	
		出入往來章	通言出入往來之節		7			言好生(附)	9	
			言謁見		2			2절	17	
			言請召之節		2		處世章	通言處世之道	6	
			言干謁		1			言韜晦	3	
			言道路行旅之法		1			言求名之非(附)	6	
				5절	13			3절	15	
하권	처기편	7장	27(1)절	171	조목		居郷章	通言居郷	15	
								言接隣之道	4	
								言待城主	1	
							3절	20		
권	편	장	절	조목수	하권	접인편	8장	37절	238	
									조목수	
下卷	接人	長幼章	言事長之道		3	下卷	出處	總論章	通言出處	6
			言侍坐之節		6				言可出之道	4
			言陪話之節		5				言可處之道	5
			言侍食之節		5				言決科出身(附)	1
			言進退之節		4			4절	16	
			言應對之節		3			事君章	通言事君	7
			言陪行之節		6				言朝謁	6
			言逢遇之節		3				言侍食拜賜之節	6
			言服役之節		2				言敬君之節	4
			言慈幼(附)		2				言進諫之道	8
			10절	39		言進講之節	3			
			師友章	言師道		5				
		권	편	장	절	조목수	권	편	장	절
下卷	出處	事君章	言進退之義		5	下卷	出處	治道章	言聖人爲治之效	2
			言忠義之節		6				言更化之道	3
			8절	45	11절				52	

治道章	通言治道	13	하권	출처	4장	通言居官	11
	言王伯之辨	2				言臨民	6
	言薄稅斂	3				言聽訟	5
	言輕徭役	3				言擇人	4
	言理財	6				言事長官	3
	言明教化	5				言接同僚	3
	言作人才	5				6절	32
	言刑法	8				29절	145 조목
	言紀綱	2					
	하권	5편				37장	
하학지남	3권	9편	71장	270(12절)	1604조목		

이상과 같이 『하학지남』은 수권은 1편 3장 12절 130조목, 상권은 3편 30장 104절 591조목, 하권은 5편 37장 154절 883조목 등 전체 3권 9편 71장 270절 1604조목으로 분장 분절체계를 완비하여 저술된 소학서임을 알 수 있다. 안정복이 『하학지남』 전체의 의미구조를 장절 상호간의 의미접속인 분장과 분절을 통해 이해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은 경학 연구의 중요한 학문 방법론이 한국 소학서에 적용된 독자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학지남』의 편장 및 분절의 명칭을 토대로 주자의 『소학』과 대비하여 그 체계를 살펴보면, 首卷 日用篇은 『소학』의 입교 편을, 上卷 讀書·爲學·心術 篇 중 독서·위학은 『소학』 가언 편 독서 장을 확장시켜 둔 것이며, 심술은 경신 편의 심술 장을 독립적인 편으로 둔 것이다. 그리고 下卷 威儀·正家·處己·接人·出處 篇은 『소학』 명륜 편의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의 장과 경신 편의 위의·의복·음식 장에 해당한다.²¹⁾

21) 『하학지남』은 『격몽요결』의 편차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격몽요결』의 편차는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讀書), 사친(事親), 상제(喪制), 제례(祭禮), 거가(居家), 접인(接人), 처세(處世) 등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하학지남』에 대입해 보면 입지(立志)장은 위학 편 아래 있고, 혁구습(革舊習) 장은 심술 편의 일욕(逸慾) 장에 다름 아니며, 사친·상제·제례 장은 모두 정가 편 아래 분속되어있다. 이로 보건대 『하학지남』의 편차는 한국

이러한 차서는 일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학지남』 독서 편 편제에 그는 “주자가 말하기를 ‘학문하는 도는 공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공리의 요체는 반드시 독서에 있다’고 하였다. 이제 첫머리에 독서의 본의를 실어서 그것이 또 敬이 主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²²⁾고 진술하여 두었다. 위학 편에는 知行, 심술 편은 心術로 요체를 삼았다. 그러면서 위학에서 誠과 收恭으로²³⁾, 심술에서 誠意, 正心, 養氣의 법²⁴⁾을 주요 공부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밝혀 두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소학』과 『대학』의 학문 요령을 설명한 남명의 『소학도』와 일치되는 점이 있다. 남명은 『소학·대학도』를 만들면서 『소학』과 『대학』 공부의 학문 요체로 敬을 세우고 그 아래 誠을 세웠다. 그러면서 誠은 공부를 위해 도달하는 목표이며, 이 誠을 위해 敬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敬과 誠이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知行에 있어서 『소학』과 『대학』이 淺小深大의 차이는 있지만, 본원인 덕성을 함양하여 사업으로 확대하여 進德修業하는 단계에서 『소학』과 『대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²⁵⁾ 이로 살펴볼 때 『하학지남』의 상권의 차서는 『소학』과 『대학』 학문의 요령을 반영한 구성체계라고 짐작된다.²⁶⁾ 이는 또

에서 만들어진 아동을 위한 중요한 교재로 널리 읽혔던 『격몽요결』의 편차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격몽요결』의 편차는 이덕무의 『사소절』에서도 보인다. 이덕무의 『사소절』에는 御下章, 治產章, 出處章 등이 보태어져 있는데, 이는 또한 『하학지남』의 구성과 일정한 상관성을 보인다.

- 22) 安鼎福, 『下學指南』, 『讀書篇』: 按朱子曰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今揭于首以明讀書之義, 而其又以敬爲主.
- 23) 安鼎福, 『下學指南』, 『爲學篇』: 按學問工夫, 只有兩道知以明善, 行以誠身. 而其所以用力者, 在乎教之一字, 而誠又爲收功之地.
- 24) 安鼎福, 『下學指南』, 『心術篇』: 其要莫過於心術之得其正也. 故今則別爲一篇, 詳論誠意正心養氣之法.
- 25) 박순남,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12, 87~88쪽.
- 26) 강세구는 『하학지남』의 편제에 대하여 위학, 심술 편은 대학의 격물치지와 성의, 정심 그리고 위의 편, 정가, 처기 편은 수신제가, 그리고 출처 편은 치국과 통한다고 하여 <대학>의 장으로 이를 설명하여 두었다. (강세구, 『『하학지남』

한 『소학』 경신 편에 독서 장이 별도로 있는 의의에 부합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장은 덕성의 함양은 시서예악의 문으로 체험되고 확충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움으로 궁구해야 심술을 바로 잡고 밖의 일에 대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근거에 따라 안정복이 세편으로 상권을 삼고 위의 편 이하를 상권의 실용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하학지남』의 편장 분절 준거

안정복은 『하학지남』의 서문에 이 책이 『소학』의 체계를 모방하여 만든 것임을 밝혀두었다.²⁷⁾ 『하학지남』의 전체적인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을 살펴보면, 『소학』의 내용 구성 방식을 수용하여 장절 안에 말과 행적이 모두 구비되도록 구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학총목』의 명륜 편 <부자지친> 장의 체계와 『하학지남』의 <효경>, <거상>, <제사>의 체계 비교>

『소학』	『소학총목』 (이성)	『하학지남』(안정복)	『소학』 본문			
명 륜 편	父 子 之 親 章	正 家 篇	孝 敬 章	明事親之禮(1-4)	通言孝(4)	부자지친 장 36, 39조
				明凡爲人子之禮(5-10)	言奉養之節(7)	부자지친 장 5,1*(3항),18조
				明敬親命之禮(11-15)	言承命之節(3)	부자지친 장 15, 11조
				明廣愛敬之禮(16-20)	言侍側之節(6)	부자지친 장 6, 4*(2항)조, 계고 부자지친 장 14조, 선행 입교 1조
				明諫過之禮(21-23)	言服役之節(4)	부자지친 장 1*(4항),3,4*(3항), 선행 명륜 통론 43조
				明侍養疾病之禮(24-25)	言幾諫之節(4)	부자지친 장 21조
				明謹身之禮(26-27)	言侍病之節(4)	부자지친 장 24조, 가언 부자지친 장 19조,
				明祭享之禮(28-33)		
				明孝親之道(34-36)		
				明不孝警之(37-39)		

을 통해 본 안정복 학문의 성격, 『진단학보』 78호, 진단학회 1994, 229쪽.)
27) 安鼎福, 『下學指南』, 『序』: 裒粹古今嘉言善行, 略分題目, 做小學例爲此書.

		10절 39조목				계고 부자지친 장 8조	
계고편	父子之親章 明父子之親(5-21)	1절 16조목				言處變之節(5)	가언 부자지친 장 18조, 계고 부자지친 장 7조, 선행 부자지친 장 10조
						言侍下諸節(1)	부자지친 장 7(1항),5(2항), 12(1,2항),10(1,2항),9조
					9절 38조목	26조목	
가언편	父子之親章 廣父子之親(15-28)	1절 13조목				言執喪之節(2)	계고 부자지친 장 19조
						通言居喪(9)	가언 부자지친 장 23,24조, 계고 부자지친 장 20,18조
					2절 11조목	4조목	
선행편	父子之親章 實父子之親(9-18)	1절 9조목	1편	3장	14절 71조목	言祭祀之節(10)	부자지친 장 28조
						言齊戒之節(6)	부자지친 장 31조
						言追感之節(6)	가언 부자지친 장 28조
					3절 22조목	3조목	
4편	부자지친 장	13절 77조목				33조목(42.85%)	

『소학총목』은 중국학자 이성이 세운 『소학』 분장·분절체계를 이이가 『소학제가집주』를 만들면서 편집하여 둔 것이다. 『소학』 총목에 수록된 이성의 분절로 살펴본다면 부자지친 장은 내, 외편 모두 13절 77조목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계고 편 이하는 절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분절된 내용은 내편의 부자지친 장 10개의 절에 한정된다. 하권 정가 편 아래 효경, 거상, 제사 3장은 『소학』의 명부자지친 장을 수용하여 편성한 장이다. 안정복은 이 세 장을 14절로 분절하고, 그 아래 71조목을 분속하였는데, 『소학』의 내, 외편이 섞여있다. 그러면서도 성호가 『소학도』에서 가언 편을 내편 말의 확장이라고 말한 체계와 같이 계고보다 가언을 선행하고, 계고와 선행은 뒤에 배치하였다.

『소학』 전체의 명부자지친 장과 효경, 거상, 제사 3장에 분속된 조목의 수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이 중 『소학』 본문이 차지하는 내용은 43%

정도이다. 두 책에 분속된 『소학』 수록 조목으로 그 상관성을 살펴보면, 「총목」의 ‘明不孝警之’, ‘明事親之禮’와 ‘明凡爲人子之禮’, ‘明廣愛敬之禮’, ‘明敬親命之禮’, ‘明諫過之禮’, ‘明侍養疾病之禮’ 7절은 순암이 효경 장에서 ‘通言孝’, ‘言奉養之節’, ‘言侍側之節’, ‘言服役之節’, ‘言處變之節’, ‘言承命之節’, ‘言侍下諸節’, ‘言幾諫之節’, ‘言侍病之節’ 9절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明祭享之禮’ 1절은 제사 장 아래 ‘言祭祀之節’, ‘言齊戒之節’, ‘言追感之節’ 3절로 나누었다. 그리고 거상 장 아래 ‘言執喪之節’, ‘通言居喪’ 절의 조목은 明謹身之禮 절에 해당하지만, 이 장은 순암이 새로이 세운 장으로 보아야 한다. 순암의 동문인 신후담은 이성의 분절개념을 수정하고 부자지친 장을 다시 11개의 절로 나누면서, ‘明謹身之禮’ 절을 ‘親沒後事言之’로 명명한 바 있다. 그리고 계고 이하 가언·선행 편의 부자지친 장을 ‘言事生之禮’, ‘言喪死之禮’ 등으로 경계를 세우고 조목을 분속하였다.²⁸⁾ 이는 이성이 세운 분절개념이 해당 조목의 뜻으로 세우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복이 거상 장을 세우고 새로이 절을 나누는 것은 신후담의 논의를 수용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세운 개념이 소속 조목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부자지친 장 제1조와 제4조는 『소학』 분절 논의에서 明事親 내지 明養親의 개념 아래 모두 귀속시켰다. 그런데 순암은 이를 쪼개어 제1조 3항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에 나아가되[以適父母舅姑之所]’는 奉養, 제4조 2항 ‘추위도 감히 옷을 꺼입지 않으며[寒不敢襲]’는 侍側, 제1조 4항 ‘세숫물을 올릴 적에[進盥]’와 제4조 3항 ‘부모의 침과 콧물을 보이지 않게 하며[父母唾洩不見]’는 服役으로 나누어 소속시켰다. 이는 해당 항목의 내용을 부모를 봉양하는 장소 내지는 모시는 행위에 따라 매우 정치하게 논의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凡爲人子之禮’와 ‘敬親命之禮’ 두 절에 분속된 조목 가운데 5조목을 ‘侍下諸節’ 아래 한 조목으로 합쳐두었다.

28) 박순남, 신후담 앞의 논문, 90~99쪽.

특히 이 조목들은 『예기』의 「곡례」, 「내칙」, 「방기」 등에서 각기 다르게 나온 구절임에도 『예기』로 통칭하여 그대로 두었다.

조선후기 분절의 논의는 분절 내의 조목의 의미 연관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서의 분절과 연관하여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서의 분장 의도가 『소학』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암은 이러한 생각을 해체한 것으로 경서의 출처에 구애되기 보다는 분속된 조목이 일정한 개념 아래 의미적 상관성을 가질 때 그 의미가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에 분장 분절의 준거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학지남』 속에 수록된 『소학』의 조목은 장의 분속이 달라지게 되었고, 하나의 조목이 각기 다른 장으로 이속되기도 하는 등 『소학』의 장절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다.

『소학』 제14조 「사상견례」에 말하기를 무릇 대인과 말할 적에[士相見禮曰 凡與大人言]는 부자지친 장에 분속되어있다. 그런데 순암은 이를 접인 편 장유 장 아래 「陪話之節」에 소속시켜 두었다. 이러한 분장의 이속은 조목 안에 뒤의 「부모인 경우[若父則]」 항목보다는 앞선 「무릇 대인과 말할 적에[凡與大人言]」라는 말에 무게가 둔 것이기에 장의 이속을 달리한 것이다.

또, 『소학』 선행 편 부자지친 제 10조는 여남 사람 설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한 행적을 실어둔 것이다. 조선후기 학자 한몽린(韓夢麟, 1684~1762)은 그가 지은 「學則」의 <友兄弟> 장에 설포의 일화 중 아우에게 받을 양보한 일화만을 취하여 선행 편 장유지서 제 40조의 온공이 그의 형 백강을 보살핀 내용과 함께 실어두었다.²⁹⁾ 이는 설포의 일화가 두 개의 논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실상 있었지만, 분장의 이속은 용납되지 않았다. 유희문이

29) 韓夢麟, 『鳳巖集』 권3, 「學則」 <友兄弟>: 自取荒頓 薛包讓田, 數問衣薄 溫公愛昆. 若使兄溫 未免弟寒, 假令弟飽 兄獨呼庚, 是猶一木 或枯或榮, 亦如一身 或病或健, 兄意焉快 弟心何穩, 和樂且湛.

“설포의 일은 효를 위주로 하였고, 재산을 나누어 준 한 가지 일은 별도의 조목으로 세우기에는 모자란다.”³⁰⁾ 고 한 것과 같이 『소학』에 수록된 의의에 맞추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순암은 설포의 선행을 둘로 나누어 효는 효경 장에, 友는 우애 장에 수록하여 이 조목이 분장되는 경계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소학』의 내용 중 본문의 본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일부만 채록하여 실기도 하였다.

성호는 『소학질서』에 『소학』 본문의 인물과 사건과 관련하여 그 적합성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왕상, 범질, 등유 등에 대하여서는 인물과 사건이 합당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논평하여 두었다.³¹⁾ 『하학지남』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 왕상과 범질, 등유 등에 관한 일화는 빠져있다.

『소학』 가언 편 제 6조에 수록된 마원이 조카들에게 훈계한 ‘慎言’은 『소학』의 조목 중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조목이다. 『하학지남』에는 謹言章 아래 분속되어있다. 그런데 『소학』에 수록된 구절 가운데 두계량과 용백고의 장·단점을 평가한 마원의 말이 빠져있다. 순암은 이 절을 포함하여 여러 조목을 “이상은 남의 허물을 말함은 옳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右言言人過之非).”고 분절개념을 세웠다. 세워진 경계로 본다면 마원이 두 사람을 평가한 내용은 이 절에 넣기에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소학』 본문의 본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거론한 이가 다산이다. 그는 “마원은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여 그 형의 아들에게 훈계하였는데, 그 자신이 먼저 이를 범하였다. 용백고와 두계량의 장단점을 논의한 것은 말이 행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³²⁾ 고 하였다. 마원의 언행이 일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사

30) 柳徽文, 『小學童子問』: 薛包事, 以孝爲主 分財一事, 未可自作一條.

31) 박순남, 박사학위논문, 154~156쪽.

32) 丁若鏞, 『小學枝言』: 馬援方以論人長短, 戒其兒子, 而身先犯之, 議龍杜長短, 可謂言不顧行矣.

실은 『소학』 본문에 채택된 사례를 절대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성호의 『소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성호학통을 계승한 문도들에게 전수된 것으로, 주자의 『소학』을 절대시하였던 학풍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다. 순암이 『소학』 본문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본문의 본지에 따라 조목을 이속하거나 그 적합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한 것 역시 그 동일한 선상에서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소학』 연구에서 분절논의는 매우 정치하게 진행되면서 『소학』의 구성 체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주자가 정한 분장체례나 조목의 배치 순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론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학』의 장절의 배치를 바꾸거나 조목의 분속이 달라지지 못하였다.

분절은 해당 학문의 요지를 일목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논지이다. 분절이 달라지면 논지의 접속이 달라지고 이는 전체의 장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된다. 『하학지남』은 주자의 『소학』과는 다른 체제와 서술방식으로 만들어진 소학서이다. 『하학지남』에 수록된 『소학』의 본문은 체례가 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편장 편목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장절의 이속이 달라지면서 분속된 조목의 논지도 다르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대학』이나 『중용』이 분절에 대한 쟁점을 달리하면서 조선후기 경학 연구의 수준을 높였던 것에 견주어 본다면, 『소학』의 분장 분절 논의를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안정복이 주자가 경서를 이해하였던 방법론인 분절을 『하학지남』에 적용하여 분절체계를 완비한 새로운 소학서를 저술한 것은 『소학』의 분절 논의에 대한 성과로 한국 소학사 뿐만 아니라 경학사에 있어서도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헌학칙』과 『하학지남』은 한국 소학학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소학』 분장 분절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여 개편된 저술물이

다. 이는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주자의 학문 방법론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 소학학의 중요한 성과인 분장 분절체계를 소학서의 저술에 응용하여 『소학』 학문의 대체를 일목요연하게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로 해석된다.

4. 결론

『하학지남』, 『동현학칙』은 모두 주자가 『소학』을 만든 의의를 반영하여 만든 소학서류로 성호학과에서 생산된 것이다. 특히 이들 책은 『소학』 논의에서 다루어졌던 『소학』 분장 분절 및 『소학』에 수록된 인물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편된, 중국의 『소학』에서 한국의 『소학』으로 심화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성과물이다.

『소학』의 입교 편 분장은 주자가 분장 분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후기 소학학의 중요쟁점이었으면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주자의 『소학』의 체재와 내용에 대해 학파마다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소학』의 학문적 권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면서 정리되지 못하고 언급에 그치기도 하였다. 성호의 『소학도』의 입교 편 분장은 퇴계 이후 『소학』의 본문이 일정한 뜻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경계가 있음을 동의한 것이다. 성호의 『소학』에 대한 이러한 논조는 분절로 경서를 이해하였던 주자의 학문 방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목의 요점을 분명하게 하여 본문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그의 경서 해석 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동현학칙』의 입교 편 분장은 『소학』의 입교 편의 체재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내용을 國學之教, 家塾之教, 家庭之教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동학』과 『대동소학』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하학지남』은 『소학』에 수록된 본문의 내용을 점검하여 장·절의 이속을 달리하여 논지가 자연스럽게 접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학지남』

은 조선후기 소학학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소학』의 장절에 대한 이견을 반영하여, 수권은 1편 3장 12절 130조목, 상권은 3편 30장 104절 591조목, 하권은 5편 37장 154절 883조목 등 전체 3권 9편 71장 270절 1604조목으로 분장 분절체례를 세웠다. 이로써 분장 분절체례를 완비한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서가 완성되었다.

성호학파에서 생산된 소학서는 체계와 서술 방식에 있어 다른 학파와 구별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소학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 소학서는 소학학의 중요쟁점이었던 『소학』의 분장 분절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면서 『소학』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 수정하여 만들어진 소학서라는 점에서 조선 소학학의 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호가 『소학질서』를 통해 『소학』에 수록된 인물과 사건이 『소학』 본문의 본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견해는 이들 소학서에 수록된 인물이 동현의 인물로 대체된 한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성호학파의 『소학』 연구의 일정한 경향성을 규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소학서는 주자의 『소학』이 그러하였듯이 안과 밖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들 책 역시 士의 규범서에 가깝다. 『동현학칙』에 ‘母教’ 관련 조목은 부부지별에 부인의 처신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직접적인 것은 선행 편 1조목에 불과하다. 안정복이 『하학지남』과 짝을 이루기 위해 『내법』을 지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동문인 신후담이 『내교(內敎)』를 별도로 만든 것도 『소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내법』은 전해지지 않지만, 신후담의 『내교』를 비롯한 계녀서에 대한 연구는 부녀자의 소학으로서, 한국 소학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기약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저서

- 金梶, 『小學圖』
安鼎福, 『順菴集』
_____, 『下學指南』
柳徽文, 『小學童子問』
李翼, 『小學疾書』
_____, 『星湖全集』
_____, 『小學圖』
李滉, 『小學圖』
丁若鏞, 『小學枝言』
韓夢麟, 『鳳巖集』

2. 참고 논저

- 강세구, 『『하학지남』을 통해 본 안정복 학문의 성격』, 『진단학보』 78호, 진단학회, 1994, 223-242쪽.
- 김형재 저, 이민수 역, 『大東小學』, 홍익문화사, 1997.
- 박순남, 『好古窩 柳徽文의 『小學章句』 분석』, 『동양한문학연구』 제34집, 동양한문학회, 2012, 161-201쪽.
- _____, 『조선후기 소학학의 형성과 전개』,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신후담의 <소학차의> 연구-분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8집, 한국문학회, 2018, 83-131쪽.
- 안정복 저, 이채구 역, 『下學指南』, 장서원, 2006.
- 이상호 저, 신귀현 역, 『東學』, 에디터, 2011.
- 정경주, 『소설 노상직의 생애와 학문경향』, 『동양한문학연구』 18, 동양한

문학회, 2003, 195-226쪽.

한관일, 『『대동소학(大東小學)』의 효교육(孝教育) 연구(研究)』, 『청소년
과 효문화』 17권,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1, 59-88쪽.

황덕길 저, 남재주 옮김, 『아동을 위한 조선판 소학』, 민속원,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s of Sohak
- Focusing on Sohakseoryu's of Seongho School

Bak, Soon-Nam*

In the process of Chu Hsi's Sohak being transformed into Korean Sohak, Sohak's academic scale and composition system, content system, and important issues are examine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examine how it was accepted and transformed into the Korean sohak and made into Korea's own sohak textbook. In particular, the continuous creation of new sohak centering on the literary students of Seongho leek can be seen as a trend toward sohak of these schools.

First, Hwang Deok-gil's Donghyeonhakchik is a book that expands and proves Sohak's sequel to Gaeon and Seonhaeng. In making this book, he divided Ipyo into three chapters: National teaching(국학지교), school teaching(가속지교), and family teaching(가정지교). This is the acceptance of the important issues of Sohakhak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is an inheritance of Toegye's Sohakdo and Seongho's Sohakdo. his divide Ipyo into chapters was accepted in Daedongsohak and Donghak as it was, and made the system of Korean sohak consistent.

Next, An Jeong-bok's Hahagjinam is a book written by Chinese scholar Yiseoung and Korean scholars to reflect their opinions on the

* Kyungsung University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Academic Research Professor

division of Sohak. This book is based on a certain standard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division under each section, a certain standard was prepared. Accordingly, Hahagjinam has a system of 130 articles with 1 volume, 3 chapters and 12 paragraphs in The beginning. And The first book has 3 volumes, 30 chapters, 104 paragraphs and 591 article systems. The last book was divided into 5 volumes, 37 chapters, and 154 paragraphs and 883 articles. With this, Hahagjinam was able to confirm that it is an independent Sohak book in Korea that is fully structured by dividing the chapter into 3 books, 9 volumes, 71 chapters, 270 paragraphs, 1604 articles, and paragraphs.

It used Chu Hsi's academic methodology in its system and content, but applied the divide a paraph systems, an important achievement of Sohakhak in Korea, in its narrative styl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Korean Sohak book.

Key Words: Sohak, Changes and Sohak, Side and chapter system,
Divide a pararaph systems, Toegye's Sohakdo, Seongho's
Sohakdo, Seongho School, Hahagjinam,
Donghyeonhakchik, Haedongsohak, Daedongsohak,
Chinese scholar Lee Seong

■ 논문접수 : 2021년 2월 24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21년 4월 20일

